자비 24시 ❶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살펴 그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인적 · 물적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 국민 복지에 이바지한다. 2025년 현대불교신문은 '자비24시'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한국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는 어르신들의 활발한 문화 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만난 이학제(81) 씨 역시 센터의 통기타 동아리 회장으로 2년 반째 활동 중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안 탑골미술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도슨트로 활약하고 있다.



센터 내 북카페는 이용자들의 인기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

'문화'로 서울 노인복지 이끌다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어르신이 주인공인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어르신 도슨트가 그림을 설명하는 '탑골미술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일구는 '노인 동아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이 곳,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 미술관, 상담센터, 식당 등 센터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추위와 외로움이 아닌 온기와 행복이 가득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또래 이웃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랑방이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장소였던 탑골공원이 서울시 주도 성역화가 진행되자 이들은 또 다른 공간을 찾아야 했다. 이에 2001년 탑골공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이기도 한 이곳은 '더 이상한 복지관'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 어르신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차별적이고 독특하며 이상적인 관점을 지향해 언제나 새로운 노인 복지의 지평을 열자는 취지다. 선배시민인 노인이 참여하고 배우며 나누는 광장으로써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문제해결'과 '노인문화발전'을 좌표 삼아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 복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본관, 분관, 별관으로 구분돼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관에서는 약 70여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일자리 안내 등이 이뤄진다. 별관에서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취업알선사업을 통해 어르신 상담과 어르신 취업의 전문 영역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분관에서는 바둑·장기 교실, 체력단련실, 탑골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취미·여가 프로그램과 영화·요리 교실 등 넓은 영역의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간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이용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노인시설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복지 공간
노인 눈높이 맞춘 '탑골미술관'
서울노인영화제 간판 프로그램
동아리 통해 주체적 활동 지원
상담 · 취업 복지서비스도 인기
지웅스님 "노인공동체 구현 노력"

올해 5월에 17회를 맞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어르신 권익 향상과 세대 간 소통,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제17회 영화제는 국내외 총 198편의 영화가 공모됐다. 특히 미국, 인도, 대만 등 총 53개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노인 영화를 출품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한 어르신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는 나 말고도 다른 국내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며 "영화제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관람해 '노인의 삶'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또 다른 특별함은 '탑골미술관'에 있다. 센터의 정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돌아서면 미술관 입구가 나타난다. 흔히 미술관은 고급문화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이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도슨트 전문교육을 거친 '실버 도슨트'가 직접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술작품을 설명하고 청년들에게는 세대 간 작품 해석의 차이를 경험하게 한다.

탑골미술관 실버 도슨트 5년 차 김영환(66) 씨는 도슨트 활동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원래 대학병원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며 예술의 'ㅇ'자도 모르고 지냈는데 은퇴 후 실버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자 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아지고 삶의 즐거움이 커졌다"면서 "도슨트 활동과 더불어 복지센터의 바둑 교실에도 참여 중이다. 은퇴 후 삶이 더욱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노인들에게서 많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서비스가 더욱 많아지면 사회가 더욱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와 같은 노인 문화 복지가 널리 퍼져 전국의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구는 동아리만 25개다. 음악, 스포츠, 미술, 인문, 미디어 등 분야를 아우르는 동아리 부원은 약 500여 명. 이용자가 직접 강사가 되고 학생이 돼 이끌어간다.

25개 동아리 중 통기타 동아리를 창립한 이학제(81) 씨는 "2018년부터 센터를 이용해오던 중 2022년에 우연히 동아리 개설이 가능한 것을 알고 20명을 모집해 시작했다"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를 사귀는 등 대인관계 폭이 넓어져 이용자들이 좋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쉼터이자 삶의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혜에 큰 기여를 한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도로 2024년 4월 탑골공원 북문 옆에서 문을 연 '복지정보센터'는 서울 곳곳에서 온 어르신들에게 각 지역구 복지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정서·법률 상담도 제공했다. 무료급식, 복지정책, 심리상담 등의 갖은 정보를 안내하는 이곳에는 개소 5개월만에 어르신 7000여명이 방문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복지정보센터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탑골공원은 그동안 하나의 '노인공동체'로 작동해왔습니다. 노숙인, 독거어르신 등 많은 분들이 한 곳에만 있으니 우울해져 또래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곳이 탑골공원이죠. 공원의 성역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지자 이 분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복지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할 권리를 위해 2025년에도 복지정보센터를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



Q. 서울노인복지센터 취임 후 이루신 주요 성과는?

A. 취임 후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이 서울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함께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 구축 등을 이뤄냈어요. 또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지원, 교육·취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Q. 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방침이 있으신지.

A.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기관의 포럼 및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합니다. 사회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방침이죠. 1인 평균 45시간 이상의 외부교육을 지원하고 연간 1~3회의 직원연수를 통해 복지사 간 연대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Q. 센터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 취임하면서 센터를 '잘 먹고, 잘 놀고, 잘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먹고'는 어르신들에게 위생과 균형이 잡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잘 놀고'는 평생교육과 취미·교양·정서 등을 지원하는 것, '잘 가는'은 '웰다잉(Well-Dying)'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심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중입니다.

Q.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A. 센터 이용자 분들에게 우리 센터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센터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이길 바라고,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선배시민의 면모를 갖추게 돕는 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